

고구려와 선비족 의복 형태 비교 연구 - 북위시기를 중심으로 -

김 소 희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yle of Clothing of *Goguryeo* and *Xianbei* Tribe - Focused on Northern Wei Period -

So-Hee Kim · Keum-Seok Chae⁺*

Lecturer, Dept. Clothing and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Clothing and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4. 12. 29. 접수; 2015. 3. 2. 수정; 2015. 3. 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tyle of clothing by type of the Goguryeo and Xianbei Tribe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centered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and Xianbei Trib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both the apparels of Goguryeo and Xianbei Tribe had hemp cloth with the V-neckline with the blocked front part and hemp cloth with the open front that is worn by overlapping the straight collars of the upper garment. Both men and women wore the garment of the straight line collar that is worn by folding towards the left or right, or upper garment of the round shaped collar. Women wore an upper garment with short sleeves on top of the upper garment of Korean traditional clothes while men wore pants for the lower garment, and women wore skirt and apron with triangular cloth decoration on top of the skirt. Second, Goguryeo Anak Tomb No. 3 mural painting(year 357) shows that apparel worn by the lady who is the wife of the owner of the tomb is similar to the apparel worn by the lady in the lacquer painting for folding screen of the Sima Jinlong Tomb ancient painting on the woman of chaste reputation in terms of the form and structure.

Key Words: Goguryeo(고구려), Xianbei(선비), North wei(북위), Goguryeo costume(고구려 의복), Xianbei costume(선비족 의복)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고구려(高句麗, B.C. 37-A.D. 668)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東北)지방을 주요 무대로 하

여 건국 초기부터 지정학적 위치상 백제(百濟, B.C. 18-A.D. 660)·신라(新羅, B.C. 57-A.D. 935)·전연(前燕, 337-370)·후연(後緣, 384-409)·북위(北魏, 386-534)·돌궐(突厥) 등 주변 여러 북방 민족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발전하였다.

그 중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선비(鮮

Corresponding author ; Keum-Seok Chae

Tel. +82-2-710-9312, Fax. +82-2-710-9312

E-mail : cks9312@sookmyung.ac.kr

卑: Xianbei)족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에 B.C. 9년 고구려와 가장 먼저 접촉한 북방민족으로 등장하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에 남하하여 중국에 북위 등의 나라를 세운다. 선비족은 『후한서(後漢書)』 선비전(鮮卑傳)에 “鮮卑者, 亦東胡之支也.”라 기록되어 있고,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列傳)에 “東胡烏丸先, 後爲鮮卑”라 기록되어 그 기원이 ‘동호(東胡)’임을 알 수 있다. 선비족 탁발(拓拔)부에 의해 건립된 북위는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되는 공간을 창출하였고, 이후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수(隋, 581-618)·당(唐, 618-907)대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였다(서운경, 2010). 북위의 역사를 서술한 『위서(魏書)』 태조기(太祖紀) 천흥 원년398 정월조에는 “徙山東六州民吏及徙何高麗雜夷三十六萬百工伎巧十萬餘口以充京師”라 하여 고구려인 등 36만 명과 기술자, 예술가 10만 명이 수도에 가득 차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구려와 북위는 국혼(國婚)을 통해 관계를 맺는 등 고구려와 북위시기 선비족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고구려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문헌에 고구려와 가장 먼저 접촉한 이민족으로 등장하는 선비족과 고구려의 시대적, 지리적, 인종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고구려와 북위시기 선비족의 의복 형태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구려와 북위시기 선비족 의복 형태를 고찰하는 데 있어 고서기록, 선행연구논문, 인류학, 고고학, 의류학 관련 서적 등의 문헌 자료와 고구려 및 선비족의 유물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구려 복식 관련 시각 자료로는 고구려 안악3호분(4C), 덕흥리 고분(5C), 수산리 고분(5C), 무용총(4-5C), 각저총(4-5C), 삼실총(4-5C), 개마총(4-5C), 감신총(4-5C) 등 고분벽화 유물을 참고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문헌자료의 부족을 메우는 자료의 보고로 생활풍속도는 고구려의 복식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고대 복식 연구의 중요한

사료가 된다(이경희 외, 2007). 선비족 복식 관련 유물로는 선비탁발부에 의해 건립된 북위시기 선비 유물로 알려진 영하 고원(固原) 출토 칠관채화, 중국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 사령촌(沙嶺村)에서 발견된 선비족 문화가 남아있는 북위 태연(太延)원년(435) 사령(沙嶺)벽화(서운경, 2010), 선비 복식이 드러나는 둔황(敦煌) 석굴, 운강석굴, 용문석굴 벽화(김용문, 2009), 북위 시대 분묘인 사마금룡묘(司馬金龍墓) 출토 병풍칠화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B.C. 1세기(B.C. 37년)부터 A.D. 7세기(A.D. 668년)까지의 고구려, 그 중 고구려와 북위 시기 선비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 A.D. 4세기에서 6세기까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역으로는 4-6세기 고구려 및 북위 영토 범위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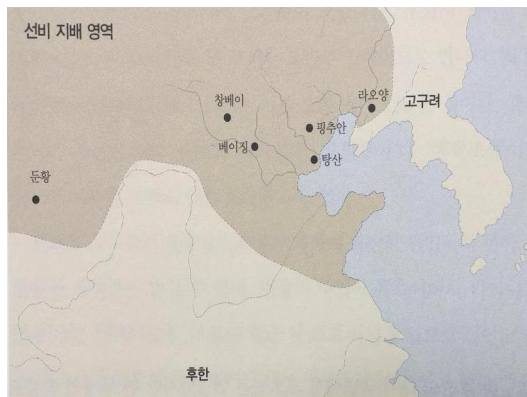
1) 고구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성한 국력을 자랑했던 나라로 B.C. 37년 주몽(朱蒙)이 이끈 부여족의 한 갈래가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修佳江; 渾江) 유역에 건국한 이래로 668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0여년을 존속하였다. 고구려라는 명칭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것은 현토군(玄菟郡) 설치 때(B.C. 107) 그 속현(屬縣)의 하나로 고구려현(高句麗縣)이 두어지면서 부터로 토착민들이 ‘큰 고을’이라 부르던 읍락에 현을 설치하고, 이를 고구려현이라 하였으며 그 뒤 B.C. 75년 현토군이 퇴축된 이후 이 읍락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 이후 국호로 사용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4).

2) 선비

선비족이 역사서에 이름을 남긴 것은 A.D. 45년부터 이 때 중국과 처음 접촉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 1세기 말 북흉노가 후한(後漢)에 게 격파되자, 선비는 흉노에 이어 몽골지역에서 번영하였으며 2세기 중엽 단석괴(檀石槐)가 선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국가를 세운 후 자주 후한에 침입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였다(그림 1). 단석괴가 죽은 후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중국에 자주 침입하였으나, 3세기 중엽에는 모용(慕容)·걸북(乞伏)·독발(禿髮)·탁발(拓跋) 등의 부족집단이 내몽골 각지에 할거(割據)하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점차 화북(華北)으로 옮겨갔다. 5호16국(五胡十六國) 시대에는 연(燕:모용씨)·진(秦:걸북씨)·양(涼:독발씨)이 화북에서 각각 나라를 세웠고, 선비족 탁발씨가 세운 북위는 439년 화북 전체를 통일하여 이른바 북조(北朝)의 기초를 열어 이후 남북조 시대가 되었다.



<그림 1> 선비의 단석괴 구력거의 치세와 고구려, 2-3C. (출처: 우리가 배운 고조선은 가짜다 (p.146) 김운희, 2012, 고양: 위즈덤하우스)

2. 지리적 배경

1) 고구려

고구려는 졸본(卒本) 지방, 지금의 압록강 중류지역을 발상지로 하여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무대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동방 침입의 요로인 통구(通溝)로 옮긴 뒤 낙랑군과 임둔군(臨屯郡)의 교통로를 단절시키는 등 한족(漢族)과의 투쟁과정에서 강대해졌다. 고구려의 발상지인 압록강 중류 유역은 동서남북을 잇는 교

통의 요충지로, 지정학적 위치상 일찍부터 중국 왕조를 비롯하여, 여러 북방민족들과 접촉하였으며 사방으로 팽창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은 고구려의 국가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당시 활발한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서승호, 2009).

2) 선비

초기 선비족은 대흥안령(大興安嶺) 북단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요서 지역에 정착하기 이전의 초기 선비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중국 동북지방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강선, 2003). 선비는 『후한서』 오환선비열전(烏桓鮮卑列傳) 권(券)90에 “鮮卑者 亦東胡之支也 別依鮮卑山 故因號焉”이라 하여 동호의 한 갈래로 선비산에 기거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하며 선비족의 생활터인 시라무룬허(西拉木倫河)는 신석기 시대 홍산 문명이 번영하였던 곳으로 선비족이 지리적으로 고대 한민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인종학적 배경

1) 고구려

고구려의 시조는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王陵碑)」와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의 “추모왕(추몽)은 북부여 출신이다”라는 기록을 통해 부여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역시 고구려를 부여(夫餘)의 별종(別種)이라는 동이(東夷)의 옛 말을 전하고, 언어와 제사(諸事)가 부여와 같다고 하여 고구려 건국 중심에 부여계 민족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부여를 구성했던 민족은 예맥(濊貊)으로, 예맥은 한국 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주민집단을 이루었으며 이후 고조선의 성장 발전 과정과 동반하였다(박준형, 2000). 고구려를 세운 맥족이라 호칭되었던 압록강 중류 지역의 주민들은 이 지역의 토착 민족으로 B.C. 1세기 중반 고구려 연맹체를 형성한 이후 스스로를 고구려인이라 칭하게 되었다.

<표 1> 고구려와 선비족 이론적 배경

시기	고구려 (B.C. 37 - A.D. 668)	선비 (B.C. 1C - A.D. 6C)
지리적 배경	졸본 지방- 압록강 중류지역이 발상지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무대로 발전	초기 - 대흥안령 북단에 거주 중국 동북지방 시라무룬허에서 농경과 유목생활
인종학적 배경	부여계 (예맥족)	동호의 후예

2) 선비

선비는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중국에 자주 침입하고, 흉노(匈奴)의 피지배 종족으로서 후에 흉노에게 멸망된 동호의 후예라고 하나 선비족의 인류학적 배경에 관한 의견은 사료 부족으로 학자들마다 인종학적 분류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어 고고학적 근거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족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고구려와 북위 시기 선비족 의복 유형별 형태 고찰

고구려와 북위 시기 선비족 의복의 유형별 형태를 문헌과 유물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고구려 의복 유형별 형태

고구려 의복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전술하였듯이 고서 및 안악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등의 고분 벽화 유물이 있으며 고구려 의복 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완진(2003)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고구려 복식의 특징은 상유하고(上襦下袴)제로 북방민족의 기본형인 호복계의 범주이며(김미진, 조우현, 2006)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구려 의복 유형은 삼국시대 의복의 기본구조인 저고리(유, 襦), 바지(고, 袴), 치마(상, 裳), 포(포, 袍)를 기본으로 함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 의복 형태를 벽화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복종(服種)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복종은 먼저 상의(上衣)와 하의(下衣)로 대분(大分)하여 상의는 저고리, 포, 반수의(半袖衣)를 중심으로, 하의는 바지, 치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저고리

고구려 옷을 지칭하는 용어로 『북사(北史)』, 『수서(隋書)』의 ‘대수삼(大袖衫)’,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의 ‘삼통수(衫筒袖)’ 등이 있으며(채금석, 2014) 삼은 중국고서 『정자통(正字通)』에 반의(半衣)라 기록되어 있고 유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일명 단의(短衣)라 하여 그 길이를 무릎 위 길이로 설명하고 있어 중국에서 삼과 유는 그 길이가 포보다 짧으며 무릎 위를 지나는 긴 길이의 저고리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를 참조하면 저고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귀족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 입혀졌음을 알 수 있는데 소재와 색상에 차이를 두어 신분을 구별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벽화에서 저고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목선을 중심으로 곧은 것의 직령(直領), 둥근 것의 반령(盤領), 깃이 젓혀진 번령(翻領) 저고리로 분류된다. 여밈에 따라 앞이 열린 전개형(前開型)과 앞이 막힌 전폐형(前閉型)으로 나뉘며 전개형의 경우 다시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좌입(左襟)과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는 우입(右襟)으로 나뉜다. 소매 형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고서 기록은 저고리 형태에 대해 대수(大袖), 삼통수(衫筒袖)라 하여 소매통이 크다는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 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벽화 자료를 통해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소매는 일반적으로 소매



<그림 2>
장천 1호분
문지기, 5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20)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3>
왕회도 고구려
사신, 7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99)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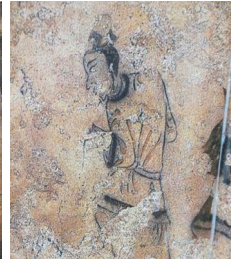
<그림 4>
안악3호분
부월수 4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82)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5>
감신총 인물도, 4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8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
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그림 6>
삼실총 역사, 4-5C.
(출처: 전통한복과한스타일
문화유적 II (p.28)
(p.32)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7>
감신총 인물도, 4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2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통의 크기에 따라 대수(大袖)와 착수(窄袖)로 나뉘며 소매통의 크기가 넓고 크면 대수, 소매통이 좁아 팔에 밀착되는 형태는 착수라 한다. 이외에 통수筒袖는 진동과 수구넓이가 비슷한 원통형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 역시 소매통의 넓이에 대, 소가 있다. 고구려 벽화와 왕회도 고구려 사신의 저고리 소매 형을 보면, 대수와 착수로 분류되며 배래는 진동과 수구의 깊이를 고려할 때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형태의 사선배래와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로 설명할 수 있다(채금석, 2014). 따라서 소매입구가 넓은 것만을 '대수'라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벽화에 나타난 저고리는 유형별로 (1) 장천 1호분 문지기(그림 2), 왕회도 고구려 사신(그림 3) 등이 입고 있는 앞이 열려 있어 직선의 곧은 깃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겹쳐 여미어 입는 전개(前開)형 직령교임(直領校任) 저고리, (2) 안악 3호분 부월수(그림 4)에서 보이는 앞이 막혀 사선의 옷깃으로 마주 합쳐진 V자 형 곧은 깃의 전폐(前閉)형 직령합임(直領合衿) 저고리(채금석, 2014), (3) 감신총 시종(그림 5), 삼실총 역사(그림 6), 감신총 인물상(그림 7)에서 보이는 둥근 깃의 반령 저고리(채금석, 2014)로 크게 분류된다.

2) 두루마기: 포(袍)

고구려의 포에 관한 문헌기록은 찾을 수 없으

나 『삼국지』에 부여인들이 포(布, 삼베)로 만든 큰 소매의 포를 입었다는 기록과 포에 대해 『석명(釋名)』에 “袍 丈夫著 下至跗者也 袍 苞也 苞 內衣也 婦人以絳作衣裳 上下連 四起施緣 亦曰袍 義亦然也” 즉, ‘포는 남자가 입는 것으로 그 길이는 발등에 이른다. 포는 싸는 것이며, 싸는 포(苞)는 내의(內衣)이다.’라고 기록되어 고대 남자의 포는 발등 정도 길이의 긴 겉옷임을 알 수 있다(채금석, 2014). 문헌에 고구려 여자 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안악3호분 등 벽화를 통해 종아리 정도 길이의 포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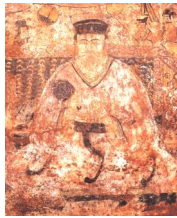
고구려 포의 목선은 크게 곧은 깃의 직령, 둥근 깃의 반령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포의 목선은 직령이나 고구려 감신총 벽화의 묘주를 비롯하여 신하로 추정되는 인물(그림 13)들은 목선이 둥근 반령포를 입고 있다. 고구려 감신총 이외의 벽화에서 반령은 대체로 직령교임저고리 안에 내의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의 여밈 역시 앞이 트인 전개형과 앞이 막힌 전폐형으로 대부분된다. 여성의 경우, 6세기 집안 통구 4호분의 귀부인 포의 옷깃이 가슴 선까지만 V자형 목선이 그려져 있고 소매는 수구가 넓은 역사선배래형에 전상(前裳)을 두르고 있어 전폐형 직령합임으로 생각되나, 그림만으로 명확히 규정지을 수는 없다.

소매는 소매통이 작고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착수, 소매통이 크고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의 대수,



<그림 8>
안악3호분 묘주도, 4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8)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9>
덕흥리고분 묘주도, 5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17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그림 10>
무용총 노래하는 선인, 5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17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그림 11>
덕흥리고분 13태수, 5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64)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12>
무용총 무희들, 4-5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24)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13>
감신총 인물도, 4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8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의 대수로 나뉜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여성 포의 대부분은 소매가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으로 판단되나, 무용총 무용수 포(그림 12)의 소매는 좁고 긴 소매 즉 착수형 장수이다. 따라서 고구려 포의 소매형은 진동보다 수구가 좁은 사선배래, 수구가 넓은 역사선배래, 그리고 착수형, 대수형 등으로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논쟁점이 되는 안악3호분 묘주(그림 8)는 앞이 막힌 V네크라인의 관두의형 직령합입포를 입고 있는데(채금석, 2014),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소매의 형태는 같은 시기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거드랑이 밑에서 수구를 향해 배래선이 둥근 반원 형태로 넓어지는 역곡선 배래형 포의 소매 형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상 벽화에 나타난 포의 유형을 정리하면 (1) 안악 3호분(그림 8), 덕흥리 고분(그림 9), 무용총(그림 10) 등의 벽화에서 묘주 및 신하 등이 착용하고 있는 V자 목선의 앞이 막힌 전폐형 직령합입 포(채금석, 2014), (2) 덕흥리고분 13태수(그림 11), 무용총 무용수(그림 12) 등의 포에서 보이는 앞이 트여 있고 끈은 것이 좌·우로 여며진 형태인 전개형 직령교입 포, (3) 감신총 벽화 인물(그림 13)에서 보이는 둥근 깃의 반령포(盤領袍)로 크게 나뉜다.

3) 반수의 (半袖衣)

고구려 상의로 저고리, 포 외에 문헌상에 등

장하지 않으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반수의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반소매 저고리란 의미로, 소매 없이 어깨선이 연장되거나 반소매를 부착한 상의를 말하며 안악3호분 묘주부인(그림 14)과 시녀(그림 15), 개마총 여인(그림 16)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끈은 깃의 직령에 여밈은 안악3호분 묘주부인(그림 14)과 시녀(그림 15) 반수의에서 보이는 겹쳐 입는 교임 형태와 개마총 여인(그림 16) 반수의에서 보이는 옷깃이 서로 맞닿은 대금 형태로 나뉜다. 수구와 옷깃에는 가선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한 의복이 일본 나라(奈良)현 도다이사(東大寺)에 있는 일본 왕실의 유물 창고 정창원(正倉院) 유물에서 수세기 후 반비(半臂)로 소개되고 있으나, 고서에 고구려 반비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반수의라 표기하였다.



<그림 14>
안악3호분 묘주부인, 4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26)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15>
안악3호분 묘주도 시녀들, 4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126)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그림 16>
개마총 귀부인, 6C.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12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4) 바지

고구려의 바지는 고라 하며 벽화를 통해 바지 역시 남녀노소 모두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복사』, 『주서』, 『수서』,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귀족은 물론 일반 남자들 모두 ‘대구고(大口袴)’ 즉 바지부리가 큰 바지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남제서(南齊書)』에 ‘궁고(窮袴)’라는 기록이 있어 고문헌과 고구려 벽화를 비교하면 고구려의 바지 유형은 크게 (1) 대구고와 (2) 궁고, (3) 쇠코잠방이로 나뉜다. 대구고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입구가 큰 바지라는 의미로 왕회도 고구려 사신 바지(그림 3)처럼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은 형태일 것이며, 궁고에 대해서는 고구려 벽화를 참고하여 ‘궁(窮)’은 ‘막히다’라는 의미로 보아 각저총 귀족남자(그림 17)와 같이 바지에 당을 달아 기마와 활동에 편리함을 주고 발목을 오므린 형태의 바지라 짐작되며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궁고형은 바지통이 좁은 형과 넓은 형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안악 3호분, 무용총에는 수박희(手搏戲)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바짓가랑이가 없는 간단한 삼각형의 하의로 긴 천을 엉덩이 부근에 둘러 감은 모습이다. 이는 고려시대 문헌 기록에 최초로 나타난 독비곤의 형상으로 추정되나 고려 이전의 고서에 그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독비곤이란, 송아지 독, 코비, 바지 곤의 한자적 의미로 볼 때 그 형상이 소의 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쇠코잠방이’라 하였는데, 수박희 장면에서 나타난 형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서 기록은 없으나, 무용총을 통해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후대의 쇠코잠방이는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져온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 한국은 주로 당(襠)을 달아 밑을 막은 바지를 입었는데 고구려 바지의 당 부착 여부 확인을 위한 숙명의예사의 견본 제작 실험 결과 고구려 바지는 그 구조상 당이 부착된 바지임을 알 수 있다(채금석, 고정민, 2009). 따라서 궁고는 바지 밑에 당을 달고 바지부리를 주름잡아 오므린 구조로서, 당시 활을 쏘고 말을 타는 활동성과 작업의 기능성을 요하는 농경생활에 적합한 최상의 바지임을 알 수 있다.

바지는 주로 저고리와 함께 하나만 착용하거나 삼실총 시녀 및 무용총 여자들의 경우 치마 안에 함께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17> 각저총 귀족남자, 4-5C. <그림 18> 쌍영총 귀부인, 5C. <그림 19> 수산리 고분 귀부인, 6C.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38)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30)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p.34)
채금석, 2012. 채금석, 2012. 채금석, 2012.
서울: 지구문화사) 서울: 지구문화사) 서울: 지구문화사)

5) 치마

고구려의 치마는 남자에게서 치마를 착용한 문헌과 시각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여자에게서만 보이는데, 여자 치마는 군(裙)이라 하여 고구려 벽화를 참고하면 주로 A-라인 치마, 주름치마, 색동치마, 밑단 가선 장식 치마, 앞치마인 덧상으로 크게 나뉜다.

쌍영총(그림 18), 무용총, 삼실총 등 벽화의 대부분 여자들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주름잡힌 주름치마를 입고 있으며 수산리 고분 벽화 귀부인(그림 19)과 덕흥리 고분 벽화의 여자 시종은 여러 색상으로 구분된 다양한 배색의 색동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시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치마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치마 밑단에는 가선을 둘러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안악3호분 묘주부인(그림 14)의 치마에는 란(欄)이 부착되고 치마 위에 삼각형의 천이 덧대어진 덧상이 입혀지는 등 보다 장식적인 세부구조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란은 옷 가장자리에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주름잡은 선단을 댄 것으로 세키네는 이를 가선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세키네, 1974).

2. 선비족 의복 형태 고찰

한족(漢族)의 입장에서 선비족을 포함한 이민족의 복식은 일반적으로 오랑캐의 옷이라 하여 ‘호복(胡服)’으로 표현되나 ‘호(胡)’의 개념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복합 개념으로 복식 고유의 명칭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선비족의 의복에 대해서는 김소현(2003), 김용문(2009), 박현정(2000), 정완진(2003) 등의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어 있으며 선비복식 형태에 관한 단독 선행 연구는 전무하다. 중국에서 선비족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이민족 왕조인 북위 시기 선비족 의복 형태 고찰을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 시각 유물을 참고하여 그 형태를 유추하였다.

북위 제 6대 황제인 효문제(孝文帝)는 태화(太和) 18년(494) 낙양으로 천도(遷都)하고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비족에게 선비어(鮮卑語)를 금지하고 한어(漢語)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복식정책에 있어 선비족의 호복 착용을 금지하고 한족 복식으로서의 한화 정책을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화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록을 통해 선비족 복식이 북위시기 일반적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현정, 2000). 또한 북위시기 선비족 복장인 둥근 목선의 ‘반령’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중국 복식 형태와는 다른 이민족 복식인 호복으로, 북조의 복제를 계승한 수와 당으로 이어져 중국 복식의 중요한 형태를 이루게 된다(채금석, 2014).

선비족의 복식은 문헌 기록에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좌임(左衽), 소수(小袖), 가죽 대, 폭이 좁은 바지, 가죽 화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목민족 복식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김용문, 2009). 선비족의 복식 디자인 형태를 보여주는 시각자료로 선비족의 것으로 알려진 북위의 영하 고원 출토 칠관채화(진 W., 2011)와 인물의 형상과 복식 및 생활풍속 장면에 선비족 문화가 보이는 사령벽화(서윤경, 2010), 중국 산시성 대동시의 석가채(石家寨)에 있는 북위 때의 분묘인 사마금룡묘 출토 병풍칠화, 선비 고유 복식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둔황 288 석굴 벽화(김용문, 2009) 등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선비족 화공(畫工)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북위 시기 고원 영하위구르차치구에 위치한 이

순묘(李順墓)에서 출토된 칠관채화는 한족의 고사를 선비의 풍속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묘실에서 출토된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가 457년에서 483년 사이의 것이므로 묘의 연대 역시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진 W., 2011). 칠관의 전당(前檔)에는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선비족 복장을 한 묘주가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옆에는 시종이, 아래쪽 양 옆으로는 두 보살입상이 있으며 관의 양 옆을 위아래 3개 층으로 나누어 효행도(孝行圖)를 그렸는데 역시 모두 선비족 복장을 하고 있다(진 W., 2011). 각 폭의 그림 사이에는 삼각화염문으로 간격을 두었으며 아래층에는 수렵도가 있는데 수렵도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와 유사한 구도를 보인다. 삼각화염문의 형태는 고구려 덕흥리 고분 벽화에 나타난 삼각화염문과 유사하며 이는 중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북방 미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양으로 5세기 초 고구려 문화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는 자료이며 C자형 화염문은 고구려에서 4세기 말 처음 등장하여 5세기 중반까지 유행하다가 소멸한 문양으로 중국에서는 북위 미술품에만 등장한다(이송란, 1998). 칠관에 그려진 삼각화염문은 고구려 계통의 것으로(이송란, 1998), 고구려의 예보다 50년이 늦는 것이 주목된다.

선비족의 의복 색상은 화려하며 이는 단조롭고 소박한 색상을 주로 이용하는 한족의 남자 복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으며(김용문, 2009) 소재로는 북방의 추운 기후 아래 유목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모피, 펠트, 가죽 등을 이용하였으며 초피(貂皮), 날피(豹皮), 혼피(麕皮)와 같은 동물 털도 의복 재료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소현, 2003).

문헌 및 유물에 나타난 의복 형태를 유형별로 상의인 저고리, 포, 반수의, 하의인 바지, 치마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1) 저고리

선비족 저고리의 목선은 곧은 것의 직령과 둥근 것의 반령으로 크게 나뉘며 둥근 것을 의미하는 상령(上領)과 반령의의 기록을 통해 둥근 것의 저고리 혹은 포가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김용문, 2009). 둥근 깃은 중국 고문헌에 상령이라 표기되어 있고(문광희, 1987), 이는 진, 오호 이래로 중국의관이 환란해지면서 침투되어 온 북위의 별칭인 원위(元魏)의 복제이며 주(周), 수(隋), 당(唐)으로 인습되어 온 호복이라 기록되어 있다(채금석, 2014). 또한 중국 전 국립역사 박물관장인 왕우청(王宇清)은 ‘남북조 시대에 호복인 반령의와 좌임이 있었는데, 수당의 제왕이 북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북국적 반령의를 들여와 중국옷과 더불어 유행하였다’하면서 이 반령의가 선비에게서 비롯된 옷임을 기록(Wang, 1976)하고 있는데 왕우청이 이 반령 저고리를 북국적이라 표현하면서 중국옷과 구분 짓고 있음은 선비족의 반령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채금석, 2014) 이는 북위 이전 선비족이 중국과는 별개의 북방 이민족이었음을 알게 하는 기록이다. 선비족 복식의 반령 저고리는 목선이 둥근 깃을 말하며, 앞이 막힌 것, 트인 것 모두를 나타내는 용어로 반령저고리라 표기하였다. 선비족의 반령 저고리는 영하 고원 칠관채화 인물들(그림 20, 21), 둔황 285굴 여인들(그림 22)이 내의로 착용하고 있으며 둔황 288굴 동벽 남자 공양인(그림 23)이 외의로 착용하고 있음을 통해 고구려와 선비족 반령 저고리 형태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그림 20> 영하고원출토 칠관채화, 5C.
(출처: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p. 94) 편집부, 2000, 도료: 쇼가쿠칸)

선비족 저고리 여밈에 관한 문헌 자료로 『남제서』에 ‘좌임(左衽)’의 기록이 있어 저고리를 왼쪽으로 여미어 입었음을 알 수 있으나 선비족 벽화 유물(그림 20)에 우임도 있어 좌임과 우임이 혼재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한대의 복식이

우임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좌임으로 입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였음을 볼 때 좌임을 하였음은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김용문, 2009).



<그림 21>
영하고원출토 칠관채화, 5C.
(출처: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p. 94) 편집부, 2000, 도료: 쇼가쿠칸)



<그림 22>
둔황 285굴, 538-539, (출처: 중국미술사 2 (p.78) 진 W., 2011. 서울: 다른생각)



<그림 23>
둔황 288동벽 공양상,
(출처: “북위시대의 호복 연구” 김용문, 2009, 한복문화, 12(3), p.56)



<그림 24>
사마금릉묘 병풍칠화, 484,
(출처: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p. 96) 편집부, 2000, 도료: 쇼가쿠칸)

또한 『위서』에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북위 시기 한식으로 복식 개혁을 하였으나, 복식 개정령 발표 3년 후 선비족 부인들이 여전히 ‘협령소수(夾領小袖)’와 ‘소수오(小袖襖)’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지역 관리를 책망하였다는 기록, 5년 후 태화 23년(499) 탁발족 귀부인들이 여전히 모자를 쓰고 탁발풍 복식을 입고 낙양 성내를 왕래하고 있어 효문제가 관리를 질책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선비족의 호복 금지 정책이 수도인 낙양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박현정, 2000). ‘협령소수’와 ‘소수오’ 기록을 통해 선비족 여자들이 통이 좁고 작은 소매의 저고리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소

매통이 좁다함은 한족 복식의 수구가 넓은 소매 형태인 광수(廣袖), 대수(大袖)와 비교하여 소매통이 좁고 작다는 의미일 것이며 이는 남방계 복식의 특징과 다른 북방 이민족 복식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영하 고원 칠관채화의 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복(그림 20, 21)은 전형적인 선비족의 의복으로, 안에 등근 목선의 반령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곧은 것의 소매통이 좁은 긴 저고리를 입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선이 달려 있으며 좌임, 혹은 우임으로 여미어 입는 앞이 열린 전개형 직령교임 저고리임을 알 수 있다.

선비족 탁발(拓拔)씨는 북중국을 제압하며 398년 북위를 세웠고 439년 훈족이 세웠던 북량을 제압하고 둔황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오호십육국 시대의 분립 항쟁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 북부를 통일하였다(장영수, 2003). 둔황 석굴 벽화에 묘사된 인물들의 복식에서 호복의 고습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둔황 288굴의 동벽 남자 공양인의 모습(그림 23)에 선비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진 W., 2011). 벽화에서 주인공은 한(漢)대의 복식을 입고 있지만 그를 따르는 시종들은 선비의 복식인 등근 네크라인의 반령 상의와 고를 착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지배계층에서는 외래 복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반인들은 전통복을 유지하는 실례를 보여준다(김용문, 2009). 또한 둔황 285굴 벽화에도 선비족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중 남자 공양인은 좁은 소매의 저고리에 깃과 도련, 길의 중앙, 수구에 가선을 두른 반령의 상의를 입고 있으며 공양하는 부인들(그림 22)은 모두 반령 저고리를 내의로 입고 직령의 짧은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2) 포

선비족 포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둔황 공양인 인물(그림 25), 운강 11굴 공양인(그림 26), 운강 13굴 공양인(그림 27)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목선을 중심으로 직령과 반령, 여밈을 중심으로 전개형과 전개형으로 나뉜다. 둔황 공양인 인물(그림 25)은 북위 태화 11년(487) 광양왕(廣陽王) 원가(元嘉)가 공양한 불

상으로 중앙에 좌불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살이 있으며 아래쪽 중앙에 발원문이 있는데 그 좌우에 수놓아져 있는 공양인은 색채가 화려하고 수놓은 기술이 뛰어나며 화풍이 둔황 벽화와 유사하다. 현재는 네 명의 여인과 한 명의 남자만 남아 있는데 모두 선비족 복장을 하고 있으며(진 W., 2011) 반령의 저고리 위에 팔메트 문양이 전체적으로 수놓아진 곧은 것이 마주 합쳐진 관두의형 직령합입포를 입고 있다. 이는 V자형 목선에 특히, 밑단 가선이 일자로 막혀있음을 볼 때 앞이 막힌 전개형임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 포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된다. 선비족의 포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운강 11굴의 공양인(그림 26)은 곧은 것을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여미어 입은 형태의 직령교임형 포를 입고 있으며 운강 13굴의 공양인(그림 27) 역시 선비식 복장을 하고 있는데, 발등을 덮는 길이에 목선이 등근 반령의 포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비족 포의 소매는 『위서』 기록에 선비족에서 발원한 하남국(河南國)의 하남왕(河南王)이 입은 ‘소수포(小袖袍)’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그림 25> 둔황 북위묘 공양인, 487.
(출처: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p. 166)
편집부. 2000, 도쿄: 쇼가쿠칸)



<그림 26> 운강 11굴 공양인.
(출처: “북위시대의 호복 연구” 김용문, 2009,
한복문화, 12(3), p.13)

있는데, 명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소매가 작은 포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박현정, 2000) 이 역시 한족 복식의 수구가 넓은 소매 형태와 비교하여 소매통이 좁고 작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비족 복장을 하고 있는 광양왕자 포는 진동부분의 주름깊이와 수구 비례를 살펴 소매 형태를 유추해보면 겨드랑이 밑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로 판단되어 고구려 안악3호분 등에서 보이는 얇은 직령합입포의 소매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가 북위 사마금룡묘 벽화에서도 보이는데 연대가 고구려벽화 연대보다 약 100년 정도 후인 5세기로 되어있는 점이 주목된다.

3) 반수의

북위 분묘인 사마금룡묘 여자 인물들(그림 24)을 통해 선비족 역시 상의로 저고리, 포 외에 여인들의 반수의 착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직령 저고리 위에 깃과 수구에 이색 가선이 둘러진 소매가 짧은 조기형태인 반수의를 덧입고 있으며 그 형태는 고구려 안악 3호분 묘주부인과 시녀의 반수의와 유사한 형태이다.

4) 바지

『위서』에 선비족에서 발원한 하남국의 하남왕이 입은 ‘소구고(小口袴)’ 기록을 통해 선비족 역시 바지부리가 좁은 바지를 입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선비족 유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영하 고원 칠관채화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그림 20, 21)의 바지 형태를 보면 대부분 바지통이 여유가 있으면서 바지부리를 좁게 오므린 형태의 궁고형 바지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헌의 소구고 형태가 고구려의 궁고와 유사한 바지부리를 오므린 형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둔황 288굴 공양인(그림 23)의 바지 모양을 통해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아 바지부리 입구가 큰 일자형의 대구고 역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상의하상’의 복식이 일반적인데 반해 선비족의 복식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상의하고’의 고구려와 유사

한 형태임을 볼 때 선비족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다른 북방유목민족의 호복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기마 생활에 적합하도록 바지에 당이 달렸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7> 윤강 13굴 공양인 포 (출처: “북위시대의 호복 연구” 김용문, 2009, 한북문화, 12(3), p.13) <그림 28> 영하 고원 출토 칠관 채화 (출처: 중국미술사 2 (p.78) 진 W., 2011, 서울: 다른생각)



<그림 29> 북위 여자 도용 (출처: “북위시대의 호복 연구” 김용문, 2009, 한북문화, 12(3), p.17) <그림 30> 사마금룡묘 병풍칠화, 484. (출처: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p. 96) 편집부, 2000, 도쿄: 쇼가쿠칸)

5) 치마

선비족 치마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시각 자료를 통해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으며 크게 A-라인 치마, 주름치마, 색동치마, 밑단 가선 장식 치마, 앞치마인 덧상으로 나뉜다.

영하 고원 칠관채화의 여자 인물들(그림 28)은 주름치마 혹은 색동치마를 입고 있으며 선비족 복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둔황 지역-둔황 288굴 동벽 여인들도 줄무늬가 있는 긴 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며 둔황 285굴 벽화의 공양하는 부인들(그림 22) 역시 모두 짧은 저고리에 줄

<표 2> 고구려와 선비족 저고리 스타일 비교

	네크라인 형태	여밈 유형	가선 장식	소매 형태
고구려	직령 단령 번령	카프탄 스타일 - 전개형 전폐형 교입형 - 좌우임 혼용	네크라인, 헴 라인, 수구에 가선 장식 (동색, 이색 사용)	직선형 착수, 대수 사선 배래 역사선 배래
선비	직령 단령	카프탄 스타일 - 전개형 전폐형 교입형 - 좌우임 혼용	네크라인, 헴 라인, 수구에 가선 장식 (동색, 이색 사용)	직선형 착수, 대수 사선 배래 역사선 배래

<표 3> 고구려와 선비족 포 스타일 비교

	네크라인 형태	여밈 유형	가선 장식	소매 형태
고구려	직령 단령	카프탄 스타일 - 전개형, 교입형 - 좌우임 혼용 전폐형	네크라인, 헴 라인, 수구에 가선 장식 (동색, 이색 사용)	사선 배래 역사선 배래
선비	직령 단령	카프탄 스타일 - 전개형, 교입형 - 좌우임 혼용 전폐형	네크라인, 헴 라인, 수구에 가선 장식 (동색, 이색 사용)	사선 배래

무늬가 있는 긴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복위시기 선비족 여자 도용(그림 29)에서 색동치마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사마금룡묘 여인들(그림 30)은 치마 밑단에 주름 장식의 띠가 달려 있고 치마 위로는 삼각형 천이 덧대어진 덧상을 입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의 치마와 유사한 형태로 사마금룡묘 칠관채화가 약 1세기 늦게 제작된 점이 주목된다.

IV. 고구려·선비족 의복 형태 비교

전술한대로 고구려는 안악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무용총, 감신총 등의 벽화 유물 중심으로, 복위시기 선비족은 영하 고원 출토 칠관채화, 중국 산서성 대동 사령 벽화, 둔황 석굴, 운강 석굴, 용문 석굴 벽화, 사마금룡묘 출토 병풍칠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하여 유형별로 저고리, 포, 반수의, 바지, 치마로 나누어 그 형태를 살펴본다.

1. 저고리

고구려와 선비의 저고리 형태를 그 세부사항-목선, 여밈, 소매형, 가선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고구려는 남녀노소 모두 저고리를 입었으며 목선은 직령, 반령, 번령으로 집약되며, 여밈은 앞이 열린 전개형, 앞이 막힌 전폐형으로 구분되는데 좌임, 우임이 혼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매형태는 사선배래형, 통수형으로 집약되며, 역사선배래형은 개마총에서 극소수 발견될 뿐이다.

선비족 저고리는 목선에 따라 직령과 반령으로 크게 구분되며 고구려에서 보이는 번령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밈은 전개형과 전폐형으로 나뉘며 허리에 대를 매었으며 여밈은 좌임과 우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소매형의 경우 사선배래형, 역사선배래형이 존재하였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족 저고리 형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포

포의 형태를 세부사항으로 목선, 여밈, 소매

<표 4> 고구려와 선비족 반수의 스타일 비교

	네크라인 형태	여밈 유형	가선 장식
고구려	직령	전개형, 전폐형, 교임형, 대금형	네크라인, 험라인, 수구에 가선 장식
선비	직령	전개형, 교임형	네크라인, 험라인, 수구에 가선 장식

<표 5> 고구려와 선비족 바지 스타일 비교

	바지부리 형태	바지통 너비	비고
고구려	궁고, 대구고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은 넓은 형태), 독비곤	좁은 형-착고 넓은 형-대구고	
선비	소구고 (바지부리가 작은 형태), 궁고, 대구고	좁은 형, 넓은 형	문헌상 소구고는 벽화를 통해 바지 부리를 오므린 궁고 형태로 추정됨

<표 6> 고구려와 선비족 치마 스타일 비교

	스커트 유형	장식	길이
고구려	주름치마, 색동치마, 밑단장식치마	덧상 착용(앞치마 형태) -삼각형 천 장식, 밑단 장식, 란 장식	발등을 덮는 긴 길이
선비	주름치마, 색동치마, 밑단장식치마	덧상 착용(앞치마 형태) -삼각형 천 장식, 밑단 장식, 란 장식	발등을 덮는 긴 길이

형, 가선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고구려 포의 길이는 대략 무릎 아래에서 발등을 덮는 긴 길이로 그 목선을 중심으로 직령, 반령으로 구분되며 여밈은 전개형과 전폐형으로 나뉜다. 전개형의 경우 좌임, 우임이 혼재하였다. 포의 가선장식은 길과 같은 동색이 사용되거나 이색 가선이 달리기도 하였으며 소매형태는 대체로 사선배래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족 포 역시 무릎 아래에서 발등을 덮는 긴 길이로 목선에 따라 직령과 반령으로 대분되며 여밈을 중심으로 전개형과 전폐형으로 나뉜다. 소매형의 경우 대체로 사선배래형으로 선비족 역시 포에 동색 혹은 이색 가선장식이 사용되었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족 포의 형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반수의

반수의 형태는 목선과 여밈, 가선 유무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고구려 반수의 목선은 직령형으로 여밈은 전개형과 전폐형, 전개형의 경우 교임형(그림 14, 15)과 대금형(그림 16)으로 나뉜다. 령금 및 수구에 이색 가선 장식이 달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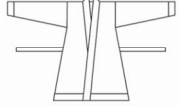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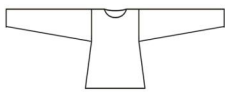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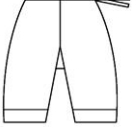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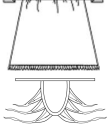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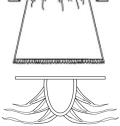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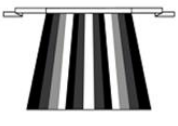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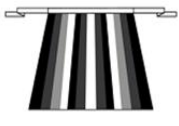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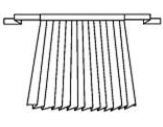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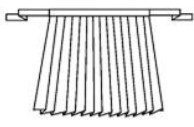
선비족의 반수의 목선은 직령, 여밈은 전개형으로 수구에 가선이 달려 있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의 반수의 형태를 <표 4>에 정리하였다.

4. 바지

바지 형태는 세부사항으로 바지통, 바지부리 형태, 당부착 유무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표 7>. 고구려와 선비족 복식 디자인 비교

	고구려	도식화	선비	도식화
저고리				
				
반수의				
포				
바지				
				
치마				
				
				

고구려의 바지통은 좁은 형과 넓은 형으로 나뉘며 바지부리의 형태에 따라 바지부리를 주름 잡아 오므린 궁고형, 바지부리가 큰 대구고형, 바짓가랑이가 없는 쇠코잠방이형으로 구분된다. (채금석, 2012). 대구고는 주로 바지통이 넓은 형태로 고구려 바지는 전술하였듯이 기마생활에 적합하도록 당이 부착되었을 것이다.

선비족의 바지는 문헌상의 바지부리가 작은 소구고와 유물에 보이는 바지부리가 넓은 대구고(그림 23)로 크게 나뉘며 문헌상의 소구고는 영하 고원 출토 칠관채화(그림 20)에서처럼 바지통은 여유가 있으나 바지부리를 오므린 궁고 형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비족 의복에 고구려의 궁고, 대구고와 유사한 형태의 바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비족 역시 그림 상으로 판별은 어려우나 기마 생활에 적합하도록 바지에 당이 달아 입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의 바지 형태를 <표 5>에 정리하였다.

5. 치마

치마 형태는 세부사항으로 치마 길이, 밑단 장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고구려의 치마는 주로 발등을 덮는 긴 길이로 문헌 및 유물을 바탕으로 크게 A-라인 치마, 주름치마(그림 18), 색동치마(그림 19), 앞치마 형태의 덧상(그림 14)으로 나뉘며 밑단에는 가선 장식 혹은 란 장식(그림 14)이 있는 치마들도 있다.

선비 치마 역시 발등을 덮는 긴 길이로 A-라인 치마, 영하 고원 칠관채화 여인의 주름치마(그림 28), 영하 고원 칠관채화(그림 28) 및 6세기 복위의 둔황285굴 벽화(그림 22), 서안 초장파(草場坡) 복위묘 여자 도용(그림 29)에서 보이는 색동치마로 크게 나뉘며 사마금룡묘 출토 여인의 치마(그림 24)의 덧상, 덧상 아래로 삼각형의 천이 훑날리는 표현, 밑단의 주름진 란 장식은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의 복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의 치마 형태를 <표 6>에 정리하였다.

이상 고구려와 선비족이 세운 북위는 저고리,

포, 반수의, 바지, 치마 등에서 형태의 유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표 7>에 정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와 선비족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잦은 교류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의복 문화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구려와 선비족의 시기적, 지리적, 인종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방을 주 무대로 건국 초기부터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 여러 북방 민족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발전하였으며 그 중 고구려와 가장 먼저 접촉한 이민족으로 기록된 선비족은 위진남북조시대에 남하하여 중국에 북위 등의 나라를 세웠다. 선비족은 동호족의 북쪽 일파로 신석기 시대 홍산 문명이 번영하였던 시라무룬허에서 유목과 소규모 농경 생활을 영위하였다.

둘째, 고구려와 북위시기 선비족 의복의 유형별 형태를 비교한 결과 상의로 저고리, 포, 반수의를 착용하였으며 저고리는 남녀 모두 직령저고리 또는 반령으로 된 전개형, 전폐형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좌임은 중국옷과 구별되는 이민족 복식의 특징으로 고구려와 선비족 모두 중국과는 별개의 이민족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는 이 외에 반령형이 존재하였으며 소매형은 사선배래형이 주로 보인다. 포는 고구려와 선비 모두 관두의형 직령합임포와 전개형 직령교임포, 반령포를 착용하였다. 여자는 저고리 위에 소매가 짧은 반수의를 덧입기도 하였다. 하의로는 바지와 치마를 착용하였는데 바지는 중국의 상의하상과 구분되는 북방 유목민 복식의 특징으로 활동하기에 편리한 입구가 좁은 궁고-선비족의 경우 고구려의 궁고에 해당하는 소구고와 바지부리가 넓은 대구고로 나뉜다. 고구려에는 이 외에 쇠코잠방이가 존재하였다. 여자는 치마를 착용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치마 위에 삼각형 천이 덧대어진 덧상을 착용하였다.

치마 형태로는 A-라인 치마, 주름치마, 색동치마가 있으며 밑단에 란 혹은 가선장식이 된 치마가 고구려와 선비족에게서 착용되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선비족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독특한 미적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 국경에 이웃하고 있던 선비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고구려 양식이라고 할 만한 복식의 특징들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구려와 선비족의 복식 비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자료 역시 불충분한 상황이며 고고학적으로도 선비족의 정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므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선. (2003).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구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4. 5. 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345&cid=1590&categoryId=1590>
- 김미진, 조우현. (2006). 고구려 복식을 활용한 캐릭터 문화상품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6(12), 145-148.
- 김소현. (2003). 호북 서울: 민속원.
- 김윤희. (2012). 우리가 배운 고조선은 가짜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용문. (2009). 북위(北魏)시대의 호북(胡服)연구. *韓服文化*, 12(3), 5-22.
- 문광희. (1987). *한 중 단령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형. (2000b). '濊貊'의 形成過程과 古朝鮮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00a). *中國 異民族 王朝의 服飾政策 比較 : 北魏와 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승호. (2009). *고구려 벽화를 통해 본 한민족의 삶과 사상*.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윤경. (2010). 북위 平城期 沙嶺벽화고분의 연구. *美術史學報*, 267, 175-208.
- 이경희, 서영대, 조우현. (2007). 고구려와 중국의 武冠 비교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51-69.
- 이승란. (1998).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文의 意味와 展開. *미술사학회*, 220, 1-43.
- 장영수. (2003). 동향석굴 초기 벽화에 묘사된 고슴의 외부적인 요소 -북경, 북위 시대를 중심으로-. *民族과文化*, 12, 105-127.
- 정완진. (2003).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a).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b).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채금석, 고정민. (2009). 백제복식문화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33(9), 1347-1360.
- 채금석. (2012). *세계화를 위한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파주: 지구문화사.
- 채금석. (2014). 백제 복식 유형별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8(1), 1-18.
- 편찬위원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An Editorial Department. (2000).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Tokyo: Shogakukan.
- Jin, W. (2011). *중국미술사 2* (김미라, 홍기용 역). 서울: 다른생각. (원저 2003 출판)
- Sekine, S. (1974). *奈良朝服飾の研究 [Research on the costume of the Nara period]*. Tokyo: Yoshikawahirumikan.
- Wang, W. C. (1976). *龍袍 [Dragon robe]*. Beijing: Museum of Chinese History.